『한국민족문화』 82, 2022. 7., 35~57 http://doi.org/10.15299/jk.2022.7.82.35

20세기 초 전후, ‘훈민정음’의 재탄생과 한계*

서 민 정**

1. 머리말
2. 서구적 관점의 근대 인식과 ‘훈민정음’의 재탄생
3. 『훈민정음』(1446)에 대한 혼동
4. 국어학자들의 『훈민정음』‘서문’의 번역과 한계
5. 맺음말

〈국문초록〉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언어에 대한 시각도 그 시대의 인식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평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5세기에 창제된 ‘훈민정음’에 대한 평가가 대표적이다.

개화기를 거치면서 언어에 대한 인식은 근대적 관점에 따라 변화하였다. 그러한 언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에서 15세기에 창제된 ‘훈민정음’은 새롭게 각광받기도 했고, 갑작스러운 재조명 속에서 시대의 간극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당시의 필요에 따라 해석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연구는 20세기 초, 훈민정음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고찰하고 그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15세기 창제된 훈민정음이 20세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되었으며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신문, 잡지 등에 실린 ‘훈민정음’ 관련된 기사와 주시경, 최현배 등과 같은 당시 국어학자들의 훈민정음 서문에 대한 인식에서 15세기 창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함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조교수(smj@pusan.ac.kr)

으로써 20세기 초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학적, 역사적, 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훈민정음'에 대해, 20세기 초라고 하는 시대의 필요에 의해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신화와 칭송의 대상이 아닌 정확한 이해를 통해 훈민정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훈민정음'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성과이며 '고전'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 주요어: 훈민정음, 어제 서문과 현대역, 20세기 초 전후, 주시경, 최현배

1. 머리말

알려진 바와 같이, 1443년 창제된 '훈민정음'[1]은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훈민정음'과 '한글'은 문자에 대한 인식이나 글자 쓰기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20세기 초 전후를 거치면서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명명하고 새롭게 조명한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2]

한편 '훈민정음'은 귀츨라프(Ch. Gützlaff, 1803~1851), 리델(Félix-Clair Ridel, 1830~1884)[3],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 등 조선에 온

---

1) '훈민정음'은 일반적으로 문자로서 '훈민정음'((1)의 밑줄)과 책으로서 『훈민정음』((2)의 밑줄)을 가리키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장부호를 활용하여 '훈민정음', 『훈민정음』으로 각각 구분하고 중립적으로 사용할 때는 '훈민정음'으로 표시한다.
(1) 〈세종실록, 세종 25년(1443) 12월 30일〉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밑줄, 진하게: 글쓴이)
(2) 〈세종실록, 세종 28년(1446) 9월 29일〉
是月**訓民正音**成 御製曰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易習 便於日用耳(밑줄, 진하게: 글쓴이)

2)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는 강길운, 『訓民正音과 音韻體系』, 형설출판사, 1992; 강신항, 「훈민정음해례의 설명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태학사, 2006. 참조.

3) Félix-Clair Ridel(1830~1884)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선교사이자 천주교 조선

서양인들의 글에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독창적"[4], "배우기 쉽고"[5],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6] 등 다양한 평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평가들은 궁극적으로 서구적 시각과 근대적 가치에 기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서양인들을 통한 훈민정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당시 주시경, 김윤경 등과 같은 국어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음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周時經 (筆者가 직접 들은 바에 의함)

『우리 글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장 진보한 科學的 組織을 가진 글입니다. 이것은 나의 獨斷이 아니라 外國人이 우리보다도 먼저 그 가치를 잘 인정하는 바외다. 요前에 나는 께일 博士의 부름을 받아 갓던 일이 잇엇습니다. 博士는 늘 우리 歷史를 상고하던 인고로 世宗의 事蹟 중 訓民正音의 創制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물은 뒤에 『世宗은 東洋 뿐 아니라 세계에 큰 貢獻을 한 갸륵한 王입니다. 여러 가지 위대한 事蹟이 많으나 무엇보다도 文字의 발명은 世界的 자랑이외다』 함을 들엇습니다. 그러하나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文字의 가치를 알지 못함은 크게 섭섭한 일이외다.』[7]

(1)의 글은 주시경의 이야기를 필자인 김윤경이 직접 들은 것에 기초해서 작성되었다. (1)에서 '外國人이 우리보다도 먼저 그 가치를 잘 인정하는 바외다'라든가, 게일 박사가 '世宗은 東洋 뿐 아니라 세계에 큰 貢獻을 한 갸륵한 王입니다. 여러 가지 위대한 事蹟이 많으나 무엇보다도 文字의 발명은 世界

교구의 대리 주교로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한불자뎐』(1880), Grammaire coréenne『한불문전』(1881) 등을 편찬하였다.

4) Ch., Gützlaff,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 *Chinese Repository,* Vol. Ⅰ, 1832, pp.276~279, 김민수·고영근 편, 『역대한국문법대계』 ②01, 박이정, 2008; 서민정·김인택 『번역을 통해 살펴본 근대 한국어를 보는 제국의 시선』, 도서출판 박이정, 2010, 11~18쪽.

5) Félix-Clair Ridel,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한불자뎐』, Yokohama, 1880; 서민정·김인택, 앞의 책, 99쪽.

6) Homer B. Hulbert, 「The Korean Alphabet Ⅱ」, *Korean Repository,* 1882.03.

7) 김윤경, 「訓民正音의 性質과 價値, 朝鮮文字의 歷史的 考察(10)」, 『동광』 제32호, 1932년 4월 1일.

的 자랑이외다'라고 한 것들이 이 당시 서양인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평가가 당시 국어학자들을 위시한 지식인들이 훈민정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훈민정음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분명 의미 있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15C와 20C의 간극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여유는 없었던 듯하다. 이러한 면에서 아래의 허웅[8]의 지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그(주시경)는 이조 초기의 언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대말의 조직을 머릿속에 두고, 그에 끌려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예는 현대 국어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이다.)

(2)는 주시경의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대한 글을 평가한 글인데, (2)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20세기 초 전후의 훈민정음의 재탄생에는 당시의 어휘로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를 해석하고 이해한 점이 분명 있다. 이를테면 '중국(中國)'이라는 국호가 1912년 신해혁명 이후 사용되었는데,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中國'도 그대로 '중국'이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1443년 창제 당시 '中國'은 최소한 국가명은 아니며, 국가명을 염두에 두었다면 '明'이나 '華'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국어학자들은 대부분 국가명으로서 '중국'으로 이해하여 현대어 번역도 '중국'이라 했고, 그 현대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어린 ᄇᆡᆨ셩'에서 '어린'을 현대어로 번역할 경우, 현대어에서는 '어리다(幼)'의 의미이지만, 창제 당시의 의미인 '어리석다'를 추적하여 '어리석은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20세기 초 전후 훈민정음의 재탄생의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이 시기에 '훈민정음'이 새롭게 조명받게 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8) 허웅, 『우리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 과학사, 1974, 313쪽.

다. 또한 이 시기에 신문이나 잡지 기사 가운데서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혼동하고 있거나, 창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기사를 통해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이 사실에 근거한 것만이 아님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주시경, 최현배 등과 같은 당시 국어학자들의 훈민정음 서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15세기 창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검토하여 그 한계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20세기 초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과 한계 때문에 '훈민정음'의 해석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훈민정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훈민정음'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것이다. '훈민정음'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고전'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서구적 관점의 근대 인식과 '훈민정음'의 재탄생

정호훈[9]과 김동준[10] 등의 논의에 따르면, 15세기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17세기 이래로 19세기까지 '훈민정음'의 이용 양상은 다양했으며, 특히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도 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성과로 19세기 초 유희(柳僖, 1773~1837)의 『諺文志』가 대표적인데, 유희는 『諺文志』에서 "언문이 배우기 쉬운데, 배우기 쉬워서 오히려 낮추어 대하는 당시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희의 안타까움은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그 양상은 전혀 달라져, 훈민정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20세기 초의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서양인들의 '훈민

9) 정호훈, 「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사상 맥락과 성과」, 『동방학지』 1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113~150쪽.
10) 김동준,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8~39쪽.

정음'에 대한 평가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11]

귀츨라프는 그의 글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1832)에서 "대다수의 많은 조선인들은 중국어의 문어를 읽는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일본어의 음절 체계와 유사한 그들의 고유한 언어에 알맞은 자모를 채택하였다. 자모 문자의 형성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독창적이다."라고 하면서 '훈민정음'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고 '독창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출판된 이중어사전의 모델이 되었던 1880년 『한불자뎐』(韓佛字典)을 집필한 프랑스 신부 리델(Félix-Clair Ridel)도 『한불자뎐』(韓佛字典)의 서문에서 '훈민정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⑶ 한국어의 문자에 해당하는 한글은 서양어의 알파벳과 비슷하게도 총 25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의 문자보다 배우기도 쉽고 빨리 습득할 수 있다. 아래의 익숙한 설명방법은 한국어의 체계가 얼마나 간단한가를 잘 보여준다. (중략) 자음과 모음이 기하학적으로 적용가능한 한글의 체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기가 쉽다. (중략)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도 한글을 익히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이다. (중략) 한글은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글로, 한자가 양반들의 글이라면 한글은 서민들의 글이다. 한글은 흘림체조차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유럽의 알파벳을 배웠다면 다른 언어의 유럽 문학을 누구나 쉽게 읽어 낼 수 있듯이 한글 역시 알파벳을 습득한 후에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체계를 가진 언어이다.

⑶에서와 같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연구한 이 시기의 서양인들은 '훈민정음'에 대해 "체계가 간단하여 배우기 쉽고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

11) 서양인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평가에 함의된 근대적 인식과 서구적 관점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민정(「19C말~20C초, 서양인의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우리말연구』 46, 우리말학회, 2016, 1~26쪽) 참조.

헐버트 또한 1892년에 "세종의 한글 창제는 인류사의 빛나는 업적"[12]이라고 평가하고, 같은 해 3월에도 같은 잡지에서 한글의 구조와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를 대조 분석하였는데, 거기서 "한글보다 더 간단하게 이보다 더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 시스템은 없다"[13]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언론에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한 다양한 글들을 기고했는데, 한글의 창제 과정과 우수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한글은 대중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영어보다 우수하다"[14]고 평가하기도 했다.[15]

한편 에스카다(Andreas Eckardt, 1884~1974)[16]는 한국어 문법서인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atik mit Lesestücken und Gesprächen* (朝鮮語交際文典)[17]를 저술했는데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훈민정음'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다.

> (4) 만약에 언어와 문자에 따라 어떠한 민족의 문화수준을 가늠해도 된다면, 한국은 지구상의 일류문화민족들 중 하나일 것이 틀림없다. 단순함과 가벼움, 표현력에 있어서 이 문자는 동급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략) 한국어 알파벳이 그렇게 쉽고 풍부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 초보자들에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 한국어 철자, 단어, 문장들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구두법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글은 '훈민정음'에 대해 문자로서 다른 그 어떤 문자와 비교해도 배우기 쉬우며, 동급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12) Homer B. Hulbert, 「The Korean Alphabet」, *Korean Repository,* 1892.01.
13) Homer B. Hulbert, 앞의 논문.
14) Homer B. Hulbert, 「The Korean Language」, *Annual Repor,* 1903.
15) 헐버트의 한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상현·빈첸자 두르소(「익명의 한국학자, 이익습(李益習, Yi Ik-seup)과 The Korean Repository誌의 '훈민정음 기원론' 논쟁」,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2016, 629~661쪽) 참조.
16) 에스카다는 베네딕토회 소속 독일 신부로,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약하면서 『Koreanische Grammatik』, 『Koreanisches Marchen(한국의 동화)』를 출간했다. 에스카다의 한국어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영근(『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22~25쪽)을 참조할 수 있다.
17) P. A. Eckardt,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atik,* Julius Groos 出版社, 1923; 역문 ②23. 이 책은 독일인에 의해 저술된 최초의 문법서이다.

이와 같은 당시 서양인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국어인 서구언어적 관점 즉 근대적 시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인들의 평가를 접한 조선 지식인들이 '훈민정음'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훈민정음'을 잘 모르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리봉운 『국문졍리』(1897)의 서문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언문'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슈치'라고 언급하였다. 주시경의 경우도 "우리 글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장 진보한 科學的 組織을 가진 글입니다. 이것은 나의 獨斷이 아니라 外國人이 우리보다도 먼저 그 가치를 잘 인정하는 바외다."[18]라고 하면서 외국인이 우리글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이 『世宗은 東洋 뿐 아니라 세계에 큰 貢獻을 한 갸륵한 王입니다. 여러 가지 위대한 事蹟이 많으나 무엇보다도 文字의 발명은 世界的 자랑이외다』[19]를 인용하면서 우리 글인 '훈민정음/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20]

비슷한 맥락에서 權悳奎의 「訓民正音沿革」(『朝鮮日報』 1926.11.16.), 李允宰의 「世宗과 訓民正音」(『東亞日報』 1927.11.25.) 등에서는 세계 다른 문자와 비교하여 훈민정음이 우수함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당시 지식인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은 서민정[21]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조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으나, 근대적 관점으로서 인식의 변화와 서양인들의 평가가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18) 김윤경, 「訓民正音의 性質과 價値, 朝鮮文字의 歷史的 考察(10)」, 『동광』 제32호, 1932년 4월 1일.

19) 위의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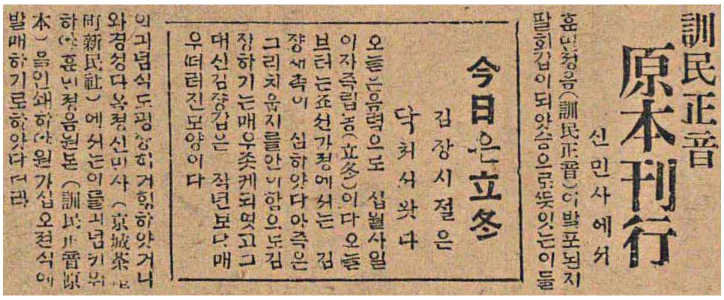
20) 김선기(「철자법의 원리」, 『한글』 3호, 한글학회, 1932.)에서도 주시경이 우리글, 즉 훈민정음이 영문의 '알파베트식 글자'임을 깨닫게 된 것이 조선어 연구에 몰두하게 된 하나의 계기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21) 서민정, 앞의 논문, 2016, 1~26쪽.

3. 『훈민정음』(1446)에 대한 혼동

알려진 바와 같이, 『훈민정음』 '원본'은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훈민정음』 해례본, 혹은 한문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1940년에 발견되었다.[22]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6년 11월 8일자 『每日申報』에 '訓民正音 原本刊行'이라는 기사에는 '원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5) 每日申報(1926.11.8.) 3면 4단



訓民正音 原本刊行
신민사에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발포된지 팔회갑이 되앗슴으로 뜻잇는 이들이 긔념식도 광장히 거힝하얏거니와 경성다옥정 신민사(京城茶屋町 新民社)에서는 이를 긔념키 위하야 훈민정음원본(訓民正音原本)을 인쇄하야 원가 십오전식에 발매하기로 하얏다더라

今日은 立冬
김장시절은 닥쳐서 왓다

오늘은 음력으로 십월사일이자 즉립동(立冬)이다 오늘브터는 조선가뎡에서는 김장세축이 심하얏다 아즉은 그리 치운지를 안니함으로 김장하기는 매우 조케되엿고 그대신 김장갑은 작년보다 매우 떠러진모양이다

(5)는 신민사라는 출판사에서 훈민정음 원본을 인쇄하여 십오전에 판매한다는 기사이다. 1926년은 훈민정음 '반포' 8회갑이라 신문, 잡지 등에서 '훈민정음'과 관련한 기사가 많았는데, (5)에서와 같이 '원본'이라는 표현이 많이 언급된다. 그러나 1926년은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본'은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원본'은 아니다.

그렇다면 (5)에서와 같이 이 시기에 언급되고 있는 훈민정음 '원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의 기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민사의 '훈민정음 원

22) 1940년 간송 전형필이 훈민정음을 구입하여 세상에 그 책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을 때, 홍기문이 그 원본의 사본(寫本)을 구했고, 이 사본을 방종현과 홍기문이 함께 번역하여 『조선일보』(1940.7.30.~8.4.)에 5회에 걸쳐 「소개: 원본 훈민정음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바 있다고 한다. 홍기문과 방종현의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상혁(「홍기문과 원본 『훈민정음』의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2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이호권(「방종현의 국어학 연구 - 『훈민정음통사』(1948)를 중심으로 - 」, 『애산학보』 49, 애산학회, 2022.) 참조.

본'은 실제로 출판되었는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대략 아래와 같이 그 가능성을 두 가지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훈민정음'에 대한 기사 등 실록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자료들을 편집해서 '훈민정음 원본'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언해본 '훈민정음'이다. 언해본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원본'과 달리 당시에 책으로 독자적으로 간행되지 않았다. 1459년 간행된 『月印釋譜』(원간본)의 권1·2 등에 실려 있던 것으로 이 시기 지식인들이 접했던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때 인식된 훈민정음 원본의 오해가 지금까지 이어져 '언해본 훈민정음'을 '훈민정음 원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가능성이든, (5)의 기사에서 『훈민정음』 원본은 실제 원본인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은 아니며, 20세기 초에 『훈민정음』 원본에 대한 혼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한편 '훈민정음'에 대한 1443년과 1446년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실록의 기록은 아래와 같다.

(6) 〈세종실록, 세종 25년 계해(1443) 12월 30일(경술)〉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23]

(7)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1446) 9월 29일〉

是月 訓民正音成 御製曰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易習 便於

23) 이 연구에서 인용한 세종실록의 자료는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DB(https://db.itkc.or.kr/, 검색일: 2022.01.15.~05.30.)'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日用耳(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漢字)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字)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

(6), (7)의 기록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훈민정음 창제는 1443년, 반포는 1446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생각은 20세기 초 전후의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8)은 『독립신문』(1899) 1면의 '훈민정음'에 대한 기사로, 여기서 '민간에 광포'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8) 『독립신문』(1899년 5월 20일), 1면 2단~2면
(전략) 셰죵 대왕씌셔 셰계 각국은 다 국문이 잇스되 대한이 홀노 업ᄂᆞᆫ것을 민망이 녁이샤 특별히 훈민 졍음을 지으샤 민간에 광포 ᄒᆞ심은 비록 향곡에 사ᄂᆞᆫ 녀ᄌᆞ와 하예ᄇᆡ ᄭᅡ지라도 다 알고 ᄲᅵ닷기 쉬게 ᄒᆞ심이니 후셰에 신민된이가 맛당히 그 셩의를 봉힝 ᄒᆞ야 국문을 슝샹 ᄒᆞᆯ 것이여ᄂᆞᆯ 그젼에ᄂᆞᆫ 대한 젼국이 엇지 ᄒᆞ야 다만 한문ᄆᆞᆫ 슝샹 ᄒᆞ고 본국 글은 등기 ᄒᆞ엿던지 우리가 죡히 말 ᄒᆞᆯ것이 업거니와(후략, 밑줄: 글쓴이)

(8)에서 밑줄 친 것과 같이, 이 시기에 많은 글에서 '민간에 광포'와 혹은 '반포'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앞의 (6)~(7)의 세종실록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 '광포'나 '반포'하였다는 기록은 사실 찾기 어렵다. 정인지 서문에서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표현은 있으나, 민간에 광포하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단지 (7)에서 '是月, 訓民正音成'(이달에 훈민정음을 이루었다)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반포' 혹은 '광포'라고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민간에 광포ᄒᆞ심'이라는 표현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이다. 아래의 자료는 1931년에 기술되었는데 여기서도 '세상에 발포'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한번 인식된 '훈민정음의 반포(혹은 광포)'는 이 시기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⑼ 正音의 연구는 언제붙어 시작되엇는지 알기 어렵지마는 이미 말함같이 25년 癸亥(서기 1443) 12월에 끝난 것을 다시 3년간 諺文廳에 나리어 거기서 당시 高名한 여러 학자들의 토의와 실험과 해석을 거치어 「그만하면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發布하게 된 것이외다. 즉 世宗 28년 丙寅(서기 1446) 9월에 訓民正音은 세상에 發布되어 전 국민에게 시행하게 된 것이외다. 世宗實錄 28년 秋 9월 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엇습니다.[24]

⑼에서는 ⑻보다 더 명확하게 '훈민정음'이 세상에 '발포'되어 전 국민에게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세종실록에서 찾기 어렵다.[25] 따라서 (7)의 세종실록의 기록에 있는 '訓民正音成'은 책인 『훈민정음』을 '완성'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여러 맥락 상 타당하지, 민간에 '광포/발포/반포'했다는 표현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왜곡할 수 있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1446년 9월 '훈민정음'에 대한 상황은 1940년에 발견되어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원본'을 완성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어학자들의 『훈민정음』 '서문'의 번역과 한계

『훈민정음』 '서문'은 앞선 연구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적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이 장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나 동기보다

24) 金允經, 「訓民正音의 本文, 朝鮮文字의 歷史的 考察⑼ 4. 訓民正音의 本文」, 『동광』 제27호, 1931년 11월 10일.

25) 이와 같은 인식은 몇 년 뒤 출판된 김윤경(「조선어문자급어학사」(1937), 『한결 金允經全集』 1,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14쪽)에서도 수정 혹은 보완 없이 거의 그대로 설명되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⑴ 訓民正音의 硏究는 언제부터 始作되었는지 알기 어렵지마는 이미 말함과 같이 世宗 25年 癸亥(西曆 1443) 12月에 끝난 것을 다시 3年間 諺文廳에 내리어 거기서 당시 高名한 여러 學者들의 討議와 實驗과 解釋을 거치어 "그만하면 完全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發表하게 된 것입니다. 즉 世宗 28년 丙寅(西曆 1446) 9月에 訓民正音은 世上에 發表되어 全國民에게 施行하게 된 것입니다.

는 '서문'의 언해와 해석 그리고 번역 사이의 시간적 간극과 각 어휘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나 지시대상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원본에서 제시된 '中國'이라는 어휘가 1492년에 이루어진 세조의 언해나 1907년의 주시경의 해석, 그리고 1940년 최현배의 현대역 각각에서 어떤 어휘가 선택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26]

(10)은 『훈민정음』의 '서문'이고, (11)은 '언해본'의 서문이며, (12)는 주시경[27]의 『훈민정음』 '서문'에 대한 해석이다. 그리고 (13)은 『훈민정음』 '서문'을 현대어로 옮긴 최현배[28]의 번역이다.

(10)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易習 便於日用耳

(11) 나랏말ᄊᆞ미 中듕國귁에달아
文문字쭝와로서로ᄉᆞᄆᆞᆺ디아니ᄒᆞᆯ씨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빅姓셩이 니르고져 홇배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펴디 몯ᄒᆞᄂᆞᆫ 노미 하니라
내 이를 윙ᄒᆞ야 어엿비너겨
새로 스믈여듧字쭝를 밍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ᄒᆡ예수ᄇᆡ니겨 날로ᄡᅳ매
便뼌安한킈ᄒᆞ고져 ᄒᆞᇙᄯᅡ라미니라

(12) 世宗大王始制正音
我半島가 自太古開闢으로 我半島人種이 特有ᄒᆞ고 我半島言語가 特有ᄒᆞ나 我半島文字가 無ᄒᆞ야 支那를 通ᄒᆞᆫ 後로 聰俊ᄒᆞᆫ 者ᄂᆞᆫ 漢文를 習用ᄒᆞ더니 本朝世宗大王ᄭᅴ셔 卓越英明ᄒᆞ샤 正音을 始制ᄒᆞ시니 其親序에
正音親序
國之語音이 異乎中國ᄒᆞ여 與文字로 卽漢文不相流通이라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 予ㅣ 爲此憫然ᄒᆞ여 新制二十八字ᄒᆞ

26) 『훈민정음』 서문의 현대 번역과의 비교에 대한 연구는 김슬옹(「訓民正音 세종 '서문'의 현대 번역 비교와 공역시안」, 『한국어 의미학』 25, 한국어의미학회, 2009, 1~25쪽) 참조.
27) 주시경, 「必尙自國文言(續)(4)」, 『황성신문』 1907년 4월 5일.
28) 최현배, 『한글갈』, 정음사, 1940, 441쪽.

니 欲使人人易習ᄒᆞ고 便於日用이로라 ᄒᆞ시니라

正音序解釋

此聖序를 敬讀ᄒᆞ고 其義를 窃想ᄒᆞ니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이라 ᄒᆞ심은 我國과 支那ᄂᆞᆫ 天然의 區域이 不同ᄒᆞᄆᆡ 氣候水土와 性質習尙도 相異ᄒᆞ여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 不適ᄒᆞᆷ으로 流通치 못ᄒᆞᆫ다 ᄒᆞ심이니 我國에셔ᄂᆞᆫ 我國에 適宜ᄒᆞᆫ 文字가 有ᄒᆞ여야 잘 流通되리라 ᄒᆞ심이요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 ᄒᆞ심은 支那文은 我國人民이 學習ᄒᆞ기 極難ᄒᆞ여 智者가 안이면 不能ᄒᆞᆷ으로 其餘凡常ᄒᆞᆫ 愚者ᄂᆞᆫ다 至極히 抑屈ᄒᆞᆷ을 抱ᄒᆞ고도 其情을 記出치 못ᄒᆞ여 伸寃ᄒᆞᆯ 道가 업다 ᄒᆞ심이니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셔ᄂᆞᆫ 習用ᄒᆞ기 極難ᄒᆞ여 流通되지 못ᄒᆞᄂᆞᆫ 證據와 其害의 曲盡ᄒᆞᆫ 情景을 例擧ᄒᆞ심이요 그 多字ᄂᆞᆫ 世上에 智者ᄂᆞᆫ 少ᄒᆞ고 愚者ᄂᆞᆫ 多ᄒᆞᄆᆡ 國民의 多數가 能히 文字를 習用치 못ᄒᆞ여 其害가 隨多ᄒᆞ다 ᄒᆞ심이요 予ㅣ 爲此憫然이라 ᄒᆞ심은 或 國에셔 我國에 不適ᄒᆞᆫ 漢文을 用ᄒᆞᆷ으로 智者라도 其文字를 學習ᄒᆞ노라고 歲月을 過費ᄒᆞ여더 藝智ᄒᆞ여지기에 害가 되고 愚者ᄂᆞᆫ 智ᄒᆞ여질 道가 全塞ᄒᆞ여 人民의 學識과 才藝가 不興ᄒᆞ고 國家의 政事가 未洽ᄒᆞ여 全國에 莫甚ᄒᆞᆫ 害가 되고 他國文을 永用ᄒᆞ면 此害도 永久ᄒᆞ여 民國萬世에 大弊가 됨을 憫然히 역이노라 ᄒᆞ심이요 新制二十八字ᄒᆞ니 欲使人人易習ᄒᆞ고 便於日用이로라 ᄒᆞ심이요 此二十八字ᄂᆞᆫ 我國에 適當ᄒᆞ여 智愚貴賤貧富老少男女無論ᄒᆞ고 學習ᄒᆞ기 易ᄒᆞ며 日用ᄒᆞ기 便ᄒᆞ다 ᄒᆞ심이라

美哉라 聖言이여 其民을 一視均愛ᄒᆞ사 其願與智를 各達케 ᄒᆞ시도다 大哉라 聖業이여 我半島我民國이 世界에 天然的으로 特立됨이 發表ᄒᆞᄂᆞᆫ 自國文字를 始制ᄒᆞ시니 我民國萬世에 永享不朽ᄒᆞᆯ 洪業이로라(未完)

(13) 조선말이 中國말과 달라, 中國의 問字인 漢字가 우리 조선말에 흘러 통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百姓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能히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것을 매우 어여삐 여겨, 우리 조선말에 딱 들어맞는 소리글자(한글) 스물 여덟 자를 새로 만들어내노니: 그 目的인즉, 사람사람으로 하여곰 쉽게 익혀서, 日常 生活의 소용에 便利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을 따름이니라.

(10)의 '中國'은 (11)에서 '듕귁', (12)에서는 '支那', (13)에서는 '中國'이라

는 어휘로 각각 번역되는데, 이들은 '中國, 듕귁'과 '支那'로 각각 구분된다.

먼저 '中國, 듕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1)의 '듕귁'은 15세기 당시 한자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므로 (10)의 '中國'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1)에서는 '中듕國귁'이라 쓰고 '듕귁은 皇帝겨신 곳이라. 商談에 江南이라 하ᄂᆞ니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10)과 (11)은 같은 어휘라 볼 수 있다. 그래서 (10, 11)과 (13)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정립비[29]에 따르면,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中國'이라는 칭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中國'은 春秋戰國 시대부터 사용해 온 단어로, 그 시기에는 주로 夏나라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고 한다. 또한 '中國'과 대립되는 단어는 '四夷', '夷狄' 등으로 '中國'이라는 명칭이 재래의 천하관에 입각한 단어로, 종번관계가 존속된 조선 시대에 대부분 유림들이 그러한 천하관을 받아들였으며 명나라와 청나라를 '中國'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즉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중국'이라는 어휘는 국가명으로서가 아니라 천하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中國'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13)에서 '中國'은 그러한 함의를 가지고 번역했다기보다는 국가의 명칭으로 '中國'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3)이 기술된 1940년 무렵은 근대적 개념의 '국가'의 의미가 확립되던 시기이고, 특히 1912년 신해혁명 이후 '中國'은 국가명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 11)과 (13)에서 어휘는 '中國'으로 같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의 함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세기의 세계관에 따른 '中國'이라는 어휘는 국가명으로서 사용한 것이지만, 15세기에 '中國'은 종번관계 속에서 천하관을 받아들여 明을 그렇게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10)과 (11)의 '중국'의 함의를 (13)의 '중국'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전후하여 '훈민정음'에 대한 기술에서 그러한 함의의 차이를 인식하고 '中國'이라는 어휘에 대해 번역하거나 해석한 논의는 거의 없다. 그

29) 정립비, 「개항기 '支那' 명칭의 등장과 문화적 함의」, 『韓國史學報』 69, 고려사학회, 2017, 359~394쪽.

리고 그러한 관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30]

한편 (10)의 '中國'에 대응한 표현으로 (12)에서 사용한 '支那'라는 표현은 조선시대에는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은 표현이었는데,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中國'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급격히 많이 사용되었다. 정립비[31]에서는 1898~1910년까지 『황성신문』 논설에서 '中國', '淸國', '支那'의 사용 빈도를 비교하였는데, 1899년부터 '支那'의 사용 빈도가 이미 '中國'의 사용 빈도를 능가하였고, 같은 시기에 '支那'의 사용 빈도가 '淸國'보다 더 많으므로 중국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정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정립비[32]에서는 이 시기 '支那'라는 어휘가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윤치호, 유길준 등 일본 유학파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청일 전쟁 이후 '支那'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은 신학문 수용에 적극적이던 개화지식인들이 일본 등 타국의 신문을 광범위하게 열람하는 과정에서 '支那'라는 명칭을 접촉하게 되면서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지식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中國', '淸國'이라는 표현 대신에 '支那'로 표현한 것은 "을사늑약 이후 민족의 결속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支那'를 문화적 차원에서 배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치환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다 더 선명하게 밝혀내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개화기 조선 지식인들이 '支那'라는 단어를 중국을 지칭하는 새로운 칭호로 수용하였다. 조선시대 이래 '中國'이라는 명칭이 오래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支那'라는 외래어가 이 시기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중국인식이 깨지고 중화질서의식에서 탈출되었다는 상징"으로 분석하였다.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 대한제국기에 지식인들에 의해 주로 사용된 '支那'는 중화사상과 재래의 중국 문명을 함축하면서 배척해야 하는 대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것이다.

---

30) 근대적 의미의 '국어'와 '국어학'에 대한 논의는 김병문, 「'국어國語'를 찾아서」, 『사회언어학』 17-2, 한국사회언어학회, 2009; 이병근, 「근대국어학의 형성에 관련된 국어관」, 『한국문화』 3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3. 참조.

31) 정립비, 앞의 논문, 376쪽.

32) 정립비, 앞의 논문.

이러한 정립비[33]의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12)의 주시경[34]에서 사용한 '支那'의 의미도 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시경 또한 당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지식인이었고, 특히 언어에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국어학자라는 점에서 '支那'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훈민정음』 원본 '서문'의 '中國'이라는 어휘에 대해, 주시경[35]에서는 '支那'로, 최현배[36]에서는 '中國'으로 각각 다른 표현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이 당시 몇몇 표현들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를 오해할 만한 표현들이 있다.

이를테면 (8)에서 제시한 독립신문의 기사에서 "셰죵 대왕씌셔 셰계 각국은 다 국문이 잇스되 대한이 홀노 업ᄂᆞᆫ것을 민망히 여기샤"라고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세계', '국문'과 같은 어휘는 15세기에는 사용되지 않은 표현이다. 문제는 단순히 어휘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세계관이나 시대적 가치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종실록'이나 '훈민정음' 어디에도 '세계'라는 표현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8)의 '세계 각국'이라고 표현하면 15세기 당시 '중국'과 '외국'으로 구분하고 '중국'이 천하의 중심인 세계관이 반영되지 않고 마치 대등한 국제관계인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다. 즉 19세기 말의 세계관으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를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8)에서 '국문(國文)'이라는 표현도 15세기 창제 당시에는 없는 표현으로 실제 19세기 말에 처음 확인된다.

(14)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12일 병술(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2번째 기사
軍國機務處, 進議案及銓考局條例、命令頒布式、選擧條例議案
(전략)一, 普通試驗, 一, 特別試驗。一, 普通試驗。國文、漢文、寫字、算術、內國政、外國事情、內情外事, 俱發策(밑줄:글쓴이)(후략)

33) 위의 논문.
34) 주시경, 앞의 기사.
35) 위의 기사.
36) 최현배, 앞의 책.

(14)는 『고종실록』의 기사인데, 이와 같이 '국문'이라는 표현은 15세기 창제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14)와 같이 19세기 말에 와서야 '국어'의 의미와 혼동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 사용되던 어휘나 세계관과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 사용되던 어휘와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다름을 인식해야 『훈민정음』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허웅[37]의 지적처럼, 15세기 창제 당시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20세기 초 전후의 시대적 가치와 관점이 반영된 『훈민정음』 '서문'의 번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그(주시경)는 이조 초기의 언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대말의 조직을 머릿속에 두고, 그에 끌려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예는 현대 국어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일이다.)

(15)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대말의 조직을 머릿속에 두고, 그에 끌려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주시경뿐만 아니라 이 당시 많은 지식인, 특히 국어학자들의 경우도 적용되는 비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훈민정음', 특히 『훈민정음』 '서문'의 해석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 20세기 초, 훈민정음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고찰하고 그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15세기 창제된 훈민정음이 20세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되었으며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신문, 잡지 등에 실린 '훈민정음' 관련된 기사와 주시경, 최현배 등과 같은 당시 국어

37) 허웅, 앞의 책, 313쪽.

학자들의 훈민정음 서문에 대한 인식에서 15세기 창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하여 20세기 초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과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먼저, '훈민정음'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게 된 배경에, 조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으나, 근대적 관점으로서 인식의 변화와 귀츨라프, 리델, 에스카다, 게일 등 서양인들의 평가가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훈민정음』'원본'에 대해 혼동이 있었음을 고찰하고, 신문 등에서 언급된 '민간에 광포/반포/발포' 등의 표현이 실록 등에서는 없었음을 살폈다. 이러한 표현들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훈민정음』을 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훈민정음』'서문'의 언해와 해석 그리고 번역 사이의 시간적 간극과 각 어휘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나 지시대상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이를테면 원본에서 제시된 '中國'이라는 어휘가 1492년에 이루어진 세조의 언해나 1907년의 주시경의 해석, 그리고 1940년 최현배의 현대역 각각에서 어떤 어휘가 선택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훈민정음', 특히『훈민정음』'서문'의 해석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는 인정해야 함을 살폈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학적, 역사적, 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훈민정음'에 대해, 20세기 초라고 하는 시대의 필요에 의해 다소 왜곡된 '훈민정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신화와 칭송의 대상이 아닌 정확한 이해를 통해 훈민정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훈민정음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성과이며 '고전'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사료

김윤경,「訓民正音의 本文, 朝鮮文字의 歷史的 考察(9) 4. 訓民正音의 本文」,『동광』제27호, 1931년 11월 10일.

_____,「訓民正音의 性質과 價値, 朝鮮文字의 歷史的 考察(10)」,『동광』제32호, 1932년 4월 1일.

_____,「조선어문자급어학사」(1937),『한결 金允經全集』1,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독립신문』, 1899년 5월 20일, 1면 2단~2면.

주시경,「必尙自國文言(續)(4)」,『황성신문』1907년 4월 5일.

최현배,『한글갈』, 정음사, 1940.

홍기문,「조선정음문전요령」,『현대비평』1~5, 1927.

_____,『정음발달사(상·하)』, 서울신문사, 1946.

Gützlaff, Ch.,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 *Chinese Repository,* Vol. Ⅰ, 1832, 김민수·고영근 편,『역대한국문법대계』②01, 박이정, 2008.

Ridel, Félix-Clair,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1880.

Mission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GRAMMAIRE CORÉENNE,* 1881, 영인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Eckardt, P. A.,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atik,* Julius Groos 出版社, 1923; 김민수·고영근 편,『역대한국문법대계』②23, 박이정, 2008.

Hulbert, Homer B.,「The Korean Alphabet」, *Korean Repository,* 1892.01.

_____,「The Korean Alphabet Ⅱ」, *Korean Repository,* 1892.03.

_____,「The Korean Language」, *Annual Report,* 1903.

2. 논저

강길운,『訓民正音과 音韻體系』, 형설출판사, 1992.

강신항,「훈민정음해례의 설명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태학사, 2006.

고영근,『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김동준,「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민족문학사연구』3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김병문,「'국어國語'를 찾아서」,『사회언어학』17-2, 한국사회언어학회, 2009.
김선기,「철자법의 원리」,『한글』3호, 한글학회, 1932.
김슬옹,「訓民正音 세종 '서문'의 현대 번역 비교와 공역시안」,『한국어 의미학』25, 한국어의미학회, 2009.
서민정,「19C말~20C초, 서양인의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과 영향」,『우리말연구』46, 우리말학회, 2016.
_____,「훈민정음 서문의 두 가지 번역 - 15세기와 20세기」,『코기토』69,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1.
서민정·김인택,『번역을 통해 살펴본 근대 한국어를 보는 제국의 시선』, 도서출판 박이정, 2010.
서민정·최규수,「허웅의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과 영향관계: 19세기 말~20세기 전반기, '국어학' 학술네트워크 고찰을 위하여」,『코기토』90,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20.
이병근,「근대국어학의 형성에 관련된 국어관」,『한국문화』3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3.
이상혁,「홍기문과 원본『훈민정음』의 번역에 대하여」,『한국학연구』2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_____,「훈민정음과 한글의 언어문화사적 접근 - 문자, 문자 기능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중심으로」,『한국어학』41, 한국어학회, 2008.
이상현·빈첸자 두르소,「익명의 한국학자, 이익습(李益習, Yi Ik-seup)과 The Korean Repository誌의 '훈민정음 기원론' 논쟁」,『열상고전연구』54, 열상고전연구회, 2016.
이숭녕,「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 특히 운서편찬과 훈민정음 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아세아연구』1.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58.
이호권,「방종현의 국어학 연구 -『훈민정음통사』(1948)를 중심으로 - 」,『애산학보』49, 애산학회, 2022.
정립비,「개항기 '支那' 명칭의 등장과 문화적 함의」,『韓國史學報』69, 고려사학회, 2017.

정호훈,「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사상 맥락과 성과」,『동방학지』1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허 웅,『우리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 과학사, 1974.

3.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2022.02.10.~05.12.)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DB
(https://db.itkc.or.kr/, 검색일:2022.01.15.~05.30.)

〈Abstrac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Rebirth and Limitations of 'Hunminjungeum'

Seo, Min-Jeong

Language changes with the times. Also, the perspective of language changes with the perception of the times. In this context, the evaluation of the same object can also vary according to the times, and the evaluation of 'Hunminjeongeum' created in the 15th century is representative.

Through the 19th century, the perception of language changed according to the modern perspective. This study started from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Hunminjeongeum' newly evaluated through the change of the perception of such language, an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gap of the 15th and 20th centuries was fully reflected.

For this discussion, first, I would like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rebirth of 'Hunminjeongeum' at this time. And I would like to look into whether there was any misunderstanding or wrong part in articles or explanations such as newspapers and magazines about 'Hunminjeongeum'. For example, the original Hunminjeongeum, which is mentioned in articles related to Hunminjeongeum in newspapers and magazines at that time, is intended to examine what it means and what the Banpo (or Gwangpo) of Hunminjeongeum was actual at the time of its creation. Fi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pretation of Hunminjeongeum prefaces of Korean scholars such as Ju Si-kyung, Kim Yoon-kyung, Choi Hyun-bae, which have been affecting so far,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Hunminjeongeum' will be understood according to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creation.

* Key Words: Hunminjeongeum, Introduction of Hunminjeongeum and Translation, The Early 20th Century, Ju Si-kyung, Choi Hyun-bae

·**논문투고일**: 2022년 6월 8일 ·**심사완료일**: 2022년 7월 4일 ·**게재결정일**: 2022년 7월 5일